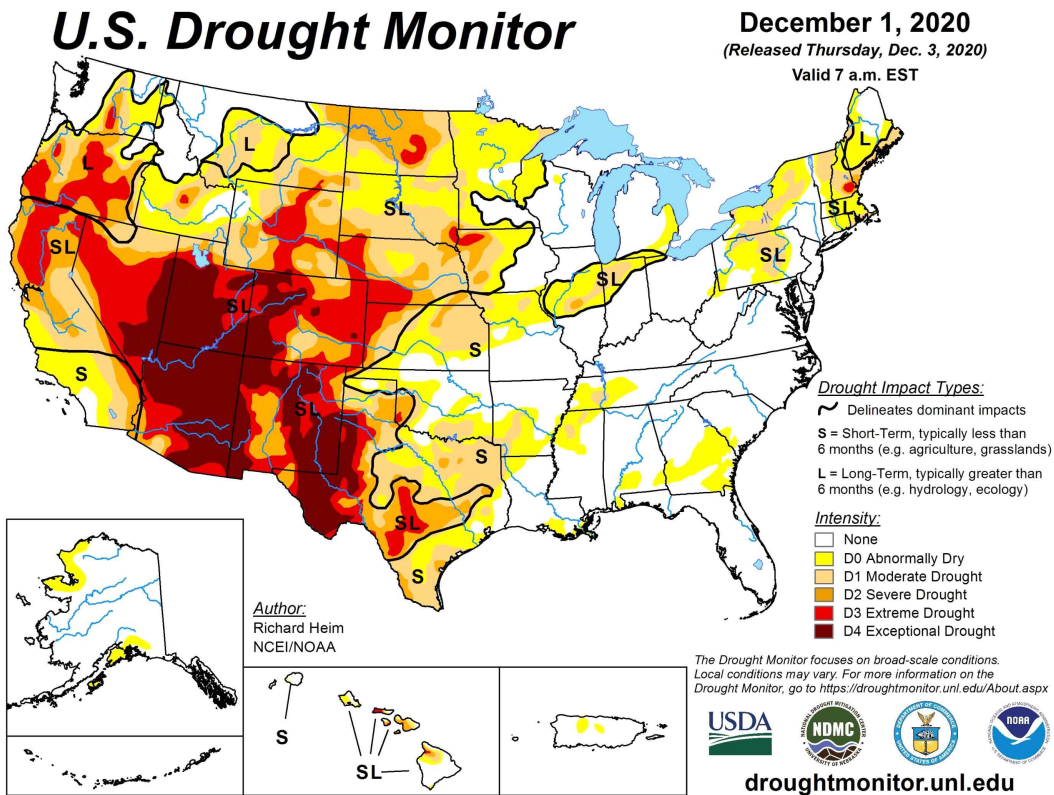


12월 8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7, No. 49)

□ 미국 기후 현황(11/29~12/5)

폭풍 전선이 남동부 및 대서양 연안 주들을 가로질러 지나가면서 주 후반에 대체로 건조했던 날씨 양상이 끝났다. 그 폭풍은 남부에 도달하기 전에, 범위가 넓지는 않았지만, 평원의 중부와 남부 일부에 유익한 강수를 내렸다. 12월 2~3일에는 몇 인치의 눈이 캔사스 남부, 오클라호마 북부 및 텍사스의 팬 핸들 북부를 덮었다. 주말에는 (12월 5일) 뉴 잉글랜드 북부에 눈이 많이 내렸다. 이보다 앞서서 옥수수 벨트 동부와 내륙 북동부 전역에 눈이 내리면서 마지막 옥수수 수확 노력을 방해했다. 12월 1일에는 가장 심했던 눈 가운데 얼마가 오하이오 북부에 내리기도 했다. 태평양 북서부에 산발적인 소나기가 내린 것을 제외하면 국내의 나머지 지역의 날씨는 건조했다. 캘리포니아 남부 연안 (산타 아나)에 바람이 부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여러 건의 새로운 산불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몬태나 동부와 다코타 주 일부의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최소 10° F 이상 높았다. 한편, 로키 산맥 남부에서부터 남동부까지 평균 측정 값은 평년보다 5~10° F 낮았다. 남부 깊숙이까지 동결이 발생했지만 플로리다 또는 텍사스의 감귤 생산 지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몇 건의 가벼운 동결이 캘리포니아의 중부 계곡에 영향을 미치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극서 지역은 심각한 추위 관련 우려는 피했다.



□ 농업 현황 요약

: 내용없음

□ 세계 기후 현황(11/29~12/5)

■ 유럽: 일부 중부 및 동부 경작지는 대체로 건조했지만, 습지만 폭풍이 점점 더 많이 부는 날씨가 우세했다. 한 쌍의 폭풍 전선이 대륙을 가로질러 천천히 이동하면서 영국에서부터 남동쪽으로 유럽의 서부, 중부 및 남부의 대부분을 가로질러 5~50 mm의 비를 그리고 산악 지대에는 눈 (액체 상당량)을 만들어내었다. 이 강수가 단기 건조를 완화했고 영양기 (스페인과 이탈리아) 및 휴면기 겨울 작물을 위해 전반적으로 유리한 수분 공급을 유지해주었다. 그러나, 독일 동부, 폴란드 북동부 및 발칸 반도 중부에는 건조 포켓이 눈에 띄었다.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최대 3° C 낮아지면서 동결이 흔하게 발생했는데, 7일 평균 수치가 5° C 또는 그 이하라는 것은 프랑스 중부에서부터 동쪽으로 대부분의 동유럽까지 겨울 작물들이 지금 휴면 중에 있음을 나타낸다. 가을 말의 식생 건강 지수가 작년과 같거나 더 좋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유럽의 겨울 작물 전망은 여전히 양호했다. 지중해에서 북쪽으로 이탈리아와 발칸반도 서부의 산으로 습기 유입이 급증한 유럽 중남부에 비와 산지의 눈이 강하게 내려서 (100 mm 이상의 액체 상당량) 봄에 예상되는 빗물의 양에 대한 전망치를 높였지만 국지적인 홍수를 일으켰다. 7일 간의 모니터링 기간 이후에도 이탈리아 북부와 주변에 폭우와 산지 눈이 계속 내려서 12월 7일 현재 총 강수량이 200 mm를 넘었다.

■ 구소련(서부): 내용없음

■ 동아시아: 내용없음

■ 호주: 퀸즐랜드 남부와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는 주초에 날씨가 덥고 건조해서 몇몇 영양기 여름 작물에게 스트레스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 후반에 광범위한 폭우 (10~25 mm, 지역적으로 50 mm에 가깝게)가 내려서 표토 수분을 증가시켰고, 한편 다소 선선한 날씨가 부드러운 식생들에게 가하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일주일 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5~7° C 높았고, 가장 더운 날에는 최고 기온이 섭씨 높은 30도대에서 중간 40도대까지의 범위에 있었다. 밀 벨트 내 다른 곳에서는 뉴 사우스 웨일즈 남부, 빅토리아 및 남호주는 지나가는 소나기 (5~15 mm, 지역적으로 거의 25 mm) 때문에 밀, 보리 및 캐놀라의 수확을 중단시켰을 수 있지만 아무리 지연되더라도 일시적이었을 것이다. 서호주에서는 건조한 날씨 덕분에 야외 작업이 지체없이 진행되었다. 보고에 따르면 호주 전역에서 겨울 곡물과 유지 작물의 수확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며 밀은 전국 규모로 절반 가까이 수확되었다.



■ 아르헨티나: 지역적 폭우가 아르헨티나의 북부 농경 지역에 확산되면서 출현하는 여름 곡류, 유지 작물 및 면화를 위한 수분을 올려주었다. 총 강우량은 25~50 mm 또는 그 이상이었고, 코르도바 중부와 엔트레 리오스에서 북쪽으로 일부 동부 지역에서는 100 mm를 초과했다. 남쪽으로 가면서 강우량이 줄어들어서 코르도바 남부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 북동부까지 10~25 mm의 범위에 있었고 남부의 겨울 곡류 지역 일부는 완전히 건조했다. 대부분의 재배기간 동안 장기간의 건조에 시달려왔던 코르도바 남부와 산타페의 다수확 옥수수 및 대두 지역에서 그 수분은 특히 환영을 받았다. 그 비가 북부 겨울 곡류를 성숙시키기에는 너무 늦었지만 지난 주에 유익한 비가 내린 후에 라 팜파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화창한 날씨가 종실 비대 중인 작물의 발달에게 좋은 혜택을 주었다. 최고 기온이 아르헨티나 중부에서는 며칠 동안 섭씨 낮은 30도대에, 먼 북부에서는 낮은 40도대에 도달하기는 했지만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에 가깝거나 평년보다 낮았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12월 3일 현재 옥수수와 대두는 각각 55% 및 54% 파종되었다. 해바라기는 99% 파종되어 작년 속도보다 5 포인트 앞섰다; 대조적으로 면화는 작년의 63% 대비 43% 파종되었다. 한편, 밀은 42% 수확되어 작년 속도보다 3 포인트 뒤쳐졌다.

■ 브라질: 지역적 폭우가 남부 생산지역에서 아주 필요했던 여름 작물들의 건조 피해를 해소해주었다. 상 파울로 서부에서 남쪽으로 리오 그란데 도 술까지 내린 강우 총량은 25 mm 이상이었고 비슷한 양이 지역적으로 마토 그로소 도 술과 미나스 제라이스 남동부에서 기록되었다. 여름의 따뜻함이 수분을 동반했고 낮 최고 기온은 마토 그로소와 그 주변에 중간 30도대 (섭씨)에 도달했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옥수수의 35%가 11월 30일 현재 개화기 및 종실비대기 중에 있었고 대두는 14%였다. 12월 3일 현재 리오 그란데 도 술에서 옥수수와 대두는 각각 85% 및 61% 파종되었고 출현한 옥수수의 55%가 생식 및 종실비대기 중에 있었다. 10월달이 계절을 벗어나 건조해서 계절 누적량이 여전히 평년 이하에 머물러 있기는 했지만 그 수분은 사탕수수와 커피에게 좋았다. 한편, 북부 대두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여기저기 가볍게 내렸을 뿐이었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총 25 mm 미만의 강수량) 내륙 북동부 중심부 (피아우이와 마란하오에서 남쪽으로 고이아스 북부와 바히아 서부까지)는 거의 완전히 건조했다. 여름의 따뜻함 (매일 최고 기온이 중간 및 높은 30도대에 도달)으로 증발 손실은 계속 높았고 일찍 심어서 현재 생식기에 도달한 대두에게 스트레스를 가했다. 이들 북부 농업 지역에서 현재의 수확량 전망이 실현되려면 보다 정상적인 기상 양상인, 광범위하면서도 강한 소나기가 다시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